

# 불교환경 '재도약' 선언... 4대강 순례길 오른다

### 불교환경연대, 3월 21일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2010년 수경 스님의 집거 이후 지도층 부재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불교환경연대'가 재도약을 선언하고, 첫 행보로 '4대강 100일 순례길'에 오른다.



상임대표 범일 스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는 3월 21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사무국에서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불교환경연대는 상임대표 범일 스님과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대표단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범일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불교환경운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고,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불교적 사상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과거 불교환경운동을 발전·계승해 생명평화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9월 창립 후 북한산관동도로 건설지지 운동, 천성산 살리기 운동, 통영 미륵산 케이볼카 건설 반대 운동 등 범사회적 환경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서산·구리남양주·강릉·광주 등 전국 지부를 창설하며 불교 환경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하지만 당시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2010년 사퇴와 함께 집거 의사를 밝힌

에 따라 지도력 약화로 인해 '숲 해설가' 양성 등 환경교육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다. 공식 창립 전 준비위원장을 맡은 유정길 현 운영위원장은 "지도층 부재로 활동이 미비해지자 불교환경연대 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출범 당시 활동한 사람들이 모여 새 대표단을 추천, 재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를 주장하며 '생명살림 100일 순례길'에 오른다.

이번 순례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완료됐지만 더욱 악화되고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는 3월 21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사무국에서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공동대표단 및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등을 발표했다.

### 상임대표 범일 스님, 활동방향 밝혀 "불교 환경운동 사상·전통 계승"

### 4월 3일 '4대강 100일 순례길' 올라 관심 환기 및 구체적 사업계획 구상

있는 환경피해를 널리 알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획했다.

또한 그간 미약했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 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범일 스님은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미완의 일'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4대강 순례길은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둘러보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례는 4월 3일 영산강 하구둑을 시작으로 금강 하구연(4월 19일), 낙동강 하구연(5월 10일), 충주댐(6월 21일) 등지를 거쳐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합한다. 하루 10~15km 행보하며 오세훈 지·목연·염불·좌선·법회·방생 등 불교적 수행과 함께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한다.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일반인들의 순례단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유정길 운영위원장은 순례 기간

동안 전국 사찰 등에서 숙박을 해결할 것이라 밝히며, 이에 대해 "사찰들에 대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교 환경운동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교환경연대는 향후 활동 방향을 △실천 △교육 △조직 총 3개 영역으로 나누고, 불교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환경 사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사찰환경을 수호하며 숲과 국립공원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난개발 시대에 중요한 환경사안이자 가깝수호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제"라면서 "국립공원 및 사찰환경 수호, 사찰 숲 지키기, 생태사찰 만들기 운동 등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불교환경 조직과 교구분사별 환경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해 지역 생태 수호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현재까지(3월 21일 기준) 상임대표 범일 스님, 유정길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범해·범만·범현·심산·장명·행법 스님 등 10명 등 위촉했다. 7월 까지 대표단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 진행되는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순례길' 회합식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보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문중 화합 당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3일 임명식을 열고 정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위)

자승 스님은 정도 스님에게 "법주사는 금오스님의 종가사찰로 산중의 어른스님을 잘 모시고 화합해서 선원, 강원을 원만히 잘 운영해달라. 또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창룡사 주지 및 제14, 15,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 조계종 성역화 불사 전국 모연 법회 열린다

### 4월 7일 초하루법회와 동시에

조계종이 4월 7일 전국사찰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한 동시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본부(추진위원장 지현, 이하 성역화 추진본부)는 "불사의 원만 회합을 위해 초하루법회를 기해 불자들에게 성역화 불사의 의미를 알리고 동참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법회에서는 성역화불사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문자 및 ARS모연이 진행된다. 각 사찰의 종무소와 계시관에는 이번 법회에 맞춰 홍보포스터도 부착된다.

한편, 성역화 추진본부는 3월 25일 조계사 일주문 앞마당에서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를 듣고 제막 및 발원문 낭독, 지신밟기 등의 행사일정을 소화했다.

신도회관에 입주한 불교계 NGO단체들은 조계사 교육관과 주차장의 임시사무실로 이전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 “북한 제재 조치와 함께 협상 출구 마련하라”

이서행 교수, 3월 21일 한평불 개최 토론회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대화의 길이 막히면 한반도 위기 조성과 안보문제는 장기간 불투명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출구 없는 제재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 단장 범응, 이하 한평불)은 3월 21일 한 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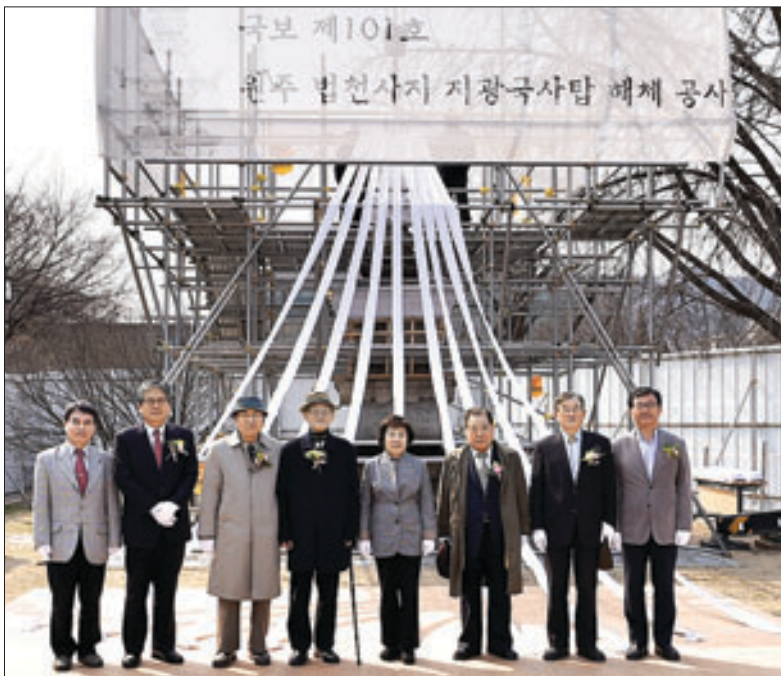
발제자는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진), 토론자는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이서행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정부의 제재 조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제재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결속과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라며 "단호함만으로 제재가 성공했다는 사례와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 정책의 문제는 북한에 제재 이후의 출구, 즉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이 더욱 고도화된 건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6자 회담이 하나의 배경일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선연적 제재보다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같은 섬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옥식 대표는 평화협정을 하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현 국면에서 평화협정은 북의 핵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남한으로서 '국가안보'와 '미래평화통일'의 구상 이란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평화협정에서는 비핵화 시한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이름 기자



###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보수 시작

일제강점기 밀반출과 6.25 전쟁 당시 폭격 피해를 입고 9번 자리를 옮겼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보존처리를 위해 본격 해체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명식)는 3월 22일 경북경주 내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는 탑의 상륜부(상층부)에 위치한 보주(寶珠, 구슬 모양의 장식)만 상징적으로 해체했다. 탑은 4월 2일까지 전체 부재가 해체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조 보존처리실로 운송돼 보존 작업에 들어간다. 연구소는 2019년 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해체 후다. 이전처를 놓고 불교계와 강원도·원주시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한 쌍으로 원주 법천사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신성민 기자·사진제공=문화재청

## 거룩한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 동산' 신성한 보리수 나무 앞에 '행복 1년 등'을 접수합니다.

### 한국불자님을 위한 행운의 기회!!

- 17명의 네팔 '라미승'들이 날마다 축원기도를 올립니다.
- 불자님이 직접 '연등을' 달 수 있습니다.
- 수익금은 지진피해 후원으로 지원합니다.
- 1년간 '인증서'를 드리며 관리 책임을 집니다.
- 선착순 1,000명에게 '만다라' '보리수잎'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 각 사찰 주지스님께 신청하십시오.
- 네팔 관광과 함께 룸비니에서 연등을 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십시오.



설치된 연등



아기부처님



만다라



보리수 잎



승인기관



네팔업무담당



한국연등달기추진본부



문의 : 010-6757-6295 | 010-9320-0189 | 팩스 054)751-8882